

#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 본당 소식

### ◆ 9월은 한국 순교자 성월입니다.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의 작은 신앙들이 그 분들의 신앙을 본 받을 수 있는 복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 ◆ 9월 성시간 안내

- 일시: 9/4 (금) 평일 미사 후
- 많은 신자들이 성시간을 통해서 예수 성심을 묵상하고 필요한 은사를 청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사제의 해로써 성시간 참석시 전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학생 복사단 모집 안내

- 신청서는 김성하 가브리엘에게 (sunghakim7@gmail.com)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일시: 10월 4일 주일미사 후
- 면접장소: Parish Center 내 본당신부 집무실

### ◆ 신 영세자 첫 고해를 위한 교육 안내

- 대상: 8/16 (일) 세례를 받은 신영세자들
- 일시: 9/19 (토) 오후 4시 30분
- 장소: 추후공지

### ◆ 신 영세자 첫 고해 안내

- 일시: 9/20 (일) 주일미사 시작 20분 전
- 장소: Holy Family church 내 고해실

### ◆ 첫 영성체 어린이 첫 고해 안내

- 일시: 9/27(일) 주일미사 시작 20분 전
- 장소: Holy Family church 내 고해실

### ◆ 친교 준비 봉사자

- 8월 30일: 윤동열 9월 6일: 김영숙

### ◆ 8월 친교 후 정리 봉사: 이호영 구역

### ◆ 이호영 구역 모임

- 일시: 9/12 (토) 오후 1시
- 장소: Highbanks Park
- 주소: 9466 Columbus Pike  
Lewis Center, OH 43035  
Oak Covers or Big Meadows Picnic Area

### ◆ 2009년 BAA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5,700이며, 지난주까지 모금액은 \$3,630입니다.
-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성모회에서 롯데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보문의: 김성하 가브리엘 (sunghakim7@gmail.com)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73.00
교 무 금	\$420.00
BBA	\$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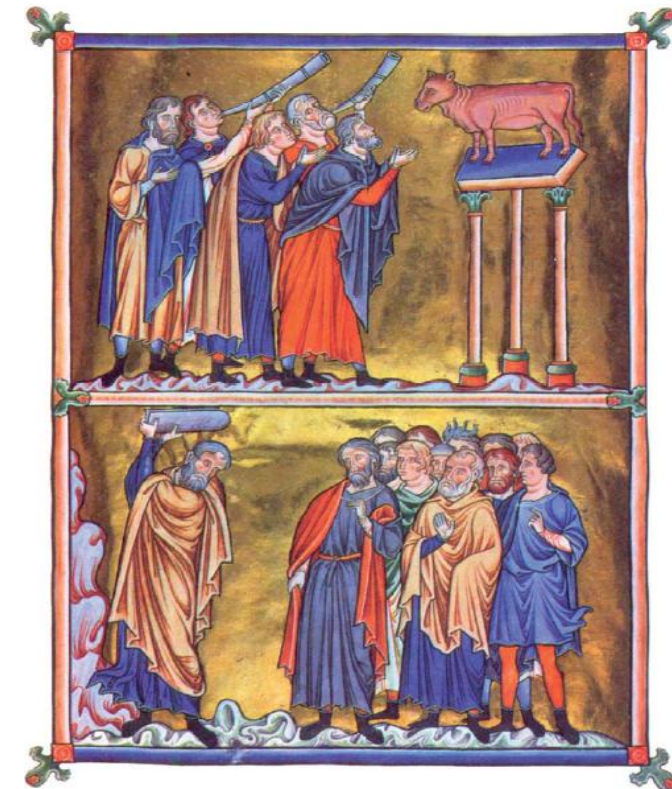
- 교무금: 김수미, 조주현, 최규선, 이도근, 고상식
- BBA: 강진광, 최규선, 윤동희



#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연중 제22주일 August 30, 2009



< 황금송아지 숭배와 십계명판을 부수는 모세 >

중세시기, 채색 삽화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신명기 4,1-2.6-8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태서는 안된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화답송**



주 - 님, 달 신 의 천 막 에 누 가 머 - 물 수 있 으 리 이 까?

**제 2 독서** 야고보서 1,17-18.21-22.27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복음** 마르코 7,1-8.14-15.21-23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923단 34명
이호영	240단 3명	23,734단 164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240단 3명	2/22/04 - 8/23/09 (287주)

☞ 총누계: 218,722단 12,799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 봉사자 안내

	8월30일	9월 6일
해설자	김오경	고상식
독서/봉헌	김효임 구역	정하상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 오늘의 성가

♪ 입당: 26      ♪ 봉헌: 218  
 ♪ 성체: 166, 167    ♪ 파견: 20

##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규성 토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를 떠나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준수되어야 할 규칙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만일 그 규칙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전락하여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존속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 준수하는 것은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러한 규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백성이라고 불리는 한, 그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키는 법규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인간들 사이에서만 사회를 이루는 집단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법규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법규는 오히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율법 규정과 법규들을 이스라엘에게 선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규는 하느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선사 된 것이기에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법규를 이해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사실 그 의미를 반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율법규정과 법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신 사랑의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법규이해와 실행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그 충만한 의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그 근본을 잊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망각되고, 준수해야 하는 의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의무는 억지로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지켜져야 하는 의무는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존중하고 관계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해방시키신 사랑의 하느님은 그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말로만 사랑의 하느님을 섬겼을 뿐, 실상 그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잘못을 밝히고 고발하는 데에 온 신경을 집중시킬 뿐입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이끌어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충만함과 성숙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결함의 인간들만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완성 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은 단순히 의무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율법 규정과 법규는 의무 규정 이전에 사랑의 규정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을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상응하여 율법과 관계 규정을 지키십시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마르 7,15).